

뚫는다

광주FC '전북 20경기 연속 무패' 저지 나서 26일 K리그1 2025 24라운드 홈경기

티켓 구입 홈팬 전원에 치맥 선물... '비어페스타' 행사도



광주FC가 전북현대와의 무패행진 저지에 나선다.

광주는 26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을 상대로 K리그1 2025 24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A매치 휴식기를 보내면서 재충전을 한 광주는 앞선 두 경기에서 승점 1점을 더하는 데 그쳤다.

두 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장식하고도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

18일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는 아사니가 페널티킥골로 0의 균형을 깼지만, 수원FC 윌리안의 동점골에 이어 골키퍼 김경민의 자책골이 기록되면서 1-2 역전패를 당했다.

지난 22일 김천상무와의 홈경기에서도 전반 36분 아사니가 환상적인 원발 슈팅으로 선제골 주인공이 됐지만, 후반 26분 김천상무 이동경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뒷심 싸움에서 밀리면서 두 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지만 아직 상위권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

광주는 8승 8무 7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32점으로 6위에 자리하고 있다. 5위 포항스틸러스(9승 5무 9패·승점 32)와 승점이 같고, 4위 FC서울(8승 9무 6패·승점 33)과는 승점 1점 차다.

3위 김천상무(10승 6무 7패)도 승점 4점 차 밖에 있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광주는 '난적'을 만난다. 15승 6무 2패(승점 51)의 전적으로 선두 질주 중인 1위 전북이 광주를 찾는다.

전북은 지난 3월 9일 강원전 0-1 패를 기록한 뒤 19경기에서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 패배를 잊은 전북을 상대로 광주가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경기가 끝나면 울산타전 휴식기가 찾아오는 만큼 광주는 모든 가용 인원을 투입해 승리 사냥에 나선다.

아사니가 이번에도 공격 전면에 선다.

'원발의 달인' 아사니는 앞선 김천상무전에서 환상적인 감아치기로 시즌 8호골에 성공했다. 4경기 연속 골이자 2023시즌 7호골을 넘어 개인 최다골이다.

물론 아사니는 전북을 상대로 5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

긴 부상에서 돌아온 유재호에도 시선이 쏠린다.

유재호는 이정호 감독이 중원 강화를 위해 올 시즌을 앞두고 전북현대에서 영입한 자원이다.

많은 기대 속에 광주 데뷔를 준비했던 유재호는 2월 11일 ACLE 산둥 타이산과의 원정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오랜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유재호는 지난 2일 김천상무전을 통해 부상 복귀

전이자 광주에서의 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워밍업을 끝낸 유재호는 전 소속팀 전북을 상대로 본격적인 시즌 출발을 알린다.

올 시즌 두 차례의 대결에서 광주는 전북에 1무 1패를 기록했다. '에이스' 아사니와 부상에서 복귀한 유재호를 앞세워 전북의 리그 무패행진을 막고 승점 3점을 추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전북전에서 인기 보이그룹 '유나이트'가 하프타임 공연을 펼친다. 유나이트 멤버 우노는 OMBC(Official Match Ball Carrier)를 맡아 광주 승리를 기원한다.

시원한 맥주 축제도 펼쳐진다. 광주는 전북전이 열리는 26일 '광주FC 비어페스타'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오후 5시부터 시작되며 구단은 티켓을 구입한 홈팬 모두에게 '치맥'을 선물한다.

구단은 성인 홈팬들을 대상으로 생맥주 1잔을 제공한다. 맥주와 함께 즐길 치킨 6000인분도 준비된다. 또 선수들이 일일 알바로 나서 직접 팬들에게 맥주와 치킨을 대접할 예정이다.

맥주·치킨 배부 부스는 동측/남측/북측 광장 총 3곳에서 운영되며, 취식 장소도 따로 마련할 방침이다.

동측과 서측 광장 맥주 판매 부스에서는 생맥주를 1000원에 구입할 수 있고, 매점에서는 캔맥주를 2000원에 할인 판매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2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1 2025 24라운드에서 아사니를 앞세워 '전북 20경기 연속 무패' 저지에 나선다. <광주FC 제공>



올 시즌 광주FC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한 조성권(앞줄 왼쪽)이 코리아컵 우승과 리그 3위라는 목표를 위해 견고한 수비를 준비한다. <광주FC 제공>

“코리아컵 우승 위해 여름 잘 보내겠다”

광주FC 수비수 조성권

말하는 대로 이루고 있는 광주FC의 조성권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린다.

광주 U-18 금호고 출신의 수비수 조성권은 프로 첫해였던 2023시즌 김포FC로 입대를 갔고, K리그2에서 플레이오프를 포함해 37경기를 소화했다.

조성권은 광주로 돌아온 지난해에는 리그 6경기 출전에 그쳤다. 그만큼 그라운드에 대한 간절함이 커졌다.

조성권은 이정호 감독 눈에 띄기 위해 훈련 때부터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열심히 시즌을 준비했다. 그리고 올 시즌 리그 19경기에서 나와 팀의 핵심 선수로 거듭났다.

'많은 경기 출전'을 목표로 했던 그는 '사우디 행' 꿈도 현실로 만들었다.

광주는 K리그팀 유일하게 ACLE 8강 무대에 올라 주목을 받았었다. 8강 티켓을 놓고 벌인 고

배전에서 역전극이 완성된 순간 조성권은 평평 눈물을 쏟아냈다.

또 하나 목표가 남아있다. 코리아컵 우승을 이야기했던 그의 도전은 진행형이다. 조성권은 지난 2일 울산과의 코리아컵 8강전에서 헤더를 성공시키면서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조성권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 빨리 가서 무섭다. 초반에 경기도 많았고 사우디도 다녀오고 행복했다. 배울 것도 많았고 경험도 많이 쌓았다”며 올 시즌을 돌아봤다.

지난해와는 다른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만족’은 없다.

조성권은 “예전에는 감독님이 원하는 걸 생각하면서 쫓는 느낌이었다면 올 시즌은 알아서 나오는 것 같다. 전술적으로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 만족하는 것은 없다. 경기에 계속 출전하는 것은 좋지만 그 안에서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다”며 “뛰면 땀속 더 잘하고 싶고 포인트도 많이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 “경기를 뛰면서 배우는 것도 많다. (민)상

기형, (주)세종이형, 헤이스는 작년부터 잘 어울려 왔던 선수들 같다. 전술을 잘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잘 안다”며 “상기 형 옆에 서면서 수비수로 대단하다고 느낀다. 수비 타이밍을 잘 아신다. 깜짝 놀랄 때가 많다.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조성권은 코리아컵 우승과 더 많은 포인트를 목표로 여름을 잘 보낼 생각이다.

조성권은 “코리아컵 결승 가고 우승하고 싶다. 아홉을 또 경험하려면 리그 3위 안에 들어야 한다. 잘 자고, 잘 먹고, 회복도 잘하고 축구 선수로서 지켜야 할 것 더 잘 지켜서 준비 잘하겠다”며 “또 빨리 어시스트 하고 싶다. 헤이스랑 특히 잘 맞아서 도움을 주고 싶다. 나는 형이라고 부르고 헤이스는 나를 우리 동생이라고 부른다. 정말 대단한 선수다. 한국 선수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팀을 생각한다. 내가 크로스 올리고, 형이 골을 넣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美 LAFC “손흥민 영입 노력 멈추지 않는다”

“진전 없지만 협상 계속”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 FC(LAFC)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토트넘·사진)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24일 “이적 협상에 관련된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LAFC가 토트넘 홋스퍼의 ‘스타’ 손흥민 영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손흥민 영입에 대한 LAFC의 관심은 앞서 보도된 바 있지만, LAFC는 몇 주 내로 손흥민을 데려오기 위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아직 어떤 결과에 이를 만큼 실질적인 진전은 없지만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LAFC는 손흥민이 2025시즌 남은 기간과 그 이후에도 팀에 합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지난 1월 토트넘과 2026년 여름까지 계약을 1년 연장하는 옵션 계약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이적설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LAFC는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과 더불어 손흥



민을 원하는 구단들 가운데 하나다.

LAFC에서 활약하던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가 프랑스 리그1 릴로 이적하면서 손흥민이 대체자로 손꼽히고 있다는 소식들도 전해졌다.

하지만 영국매체 미러는 지난 6일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이 이번 여름 LAFC의 적극적인 구애를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면서 LAFC 이적설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했다.

이런 가운데 디애슬레틱은 “지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 최고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는 손흥민은 MLS 역사상 가장 큰 영입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손흥민의 영입은 상업적으로도 큰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LAFC가 여전히 손흥민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LAFC에는 토트넘에서 오랫동안 한술밥을 먹었던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뛰고 있다. /연합뉴스